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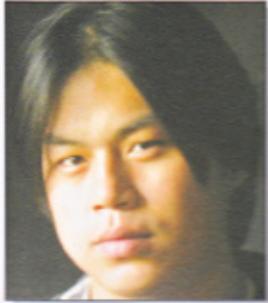


원작: 홍가이 / 재구성: 박미경 / 연출: 한재전 / 기획: 정한길

일시 : 2005년 10월 6~7일(18시30분) / 8일(14시, 18시)

장소 : 승실대학교 제1공학관 209호

극회장인사



극 회 장
김 영 결(정통98)

우리네 삶은 언제나 더하기와 빼기가 있습니다.

원하는 걸 얻은 반면 또 아까운 것을 놓치기도 하지요.

때로는 더해지지도 않고 빼기만 되는 경우도 있고 과다하게 더해져서 곤란해질 때도 있습니다.

극회도 더해지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하기 빼기 속에 계속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이 승대극회에 더해 집니다. 항상 변화와 발전이 갈구되는 우리네 삶에서 극회 또한 변화하고 발전하길 우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극이 극회의 역사에 더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작은 더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극을 올릴 수 있도록 더하기 해주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승대극회 제 70회 가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승실대학교 극예술 연구회 일동 -



연출의 변



연 출
한 재 진(성악04)

내 연기도 해야겠고, 전체도 봐야겠고,
노래하고 춤도 춰야겠는데.
살은 빼야겠고,
하루는 24시간이고.. 머리가 터질 만큼 미치겠지만...
그래도 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했다.



작품 줄거리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피해자중 한명인 한국인 영주는 한국에서 기형아를 낳고 버림을 받아 일본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밀입국 한다.

하지만 외견상 피폭자의 징후를 찾을 수 없어 그것을 인정 받기 위해 자해, 단식 등의 시위를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인 변호사 야쓰에와 미국인 신부 쿠크가 영주를 돋게 된다. 둘의 도움으로 원폭 피해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본인 히바쿠샤인 시무라와 이케다를 만난다.

병원의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자 영주는 병원에서 탈출하게 되고 1년의 세월 동안 점점 잊혀 져간다. 1년 후 마약 환자가 된 영주... 하지만 쿠크의 노력으로 영주는 새 삶을 찾고 쿠크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 결혼 후 행복했지만 그 둘의 아이 마저 기형아로 태어난다.

충격으로 또 다시 영주는 사라진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영주는 동양에서 제일가는 마약 밀수의 여왕이 된다. 법정에 선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 받는다.

CAST



최연경
(정통98)

간호사, 의사, 심문관, 검사 역
눈을 뜨다!



이육재
(법유00)

야쓰에 역
자고 싶다 ㅜ.ㅜ



한재진
(성악04)

영주 역
“기술적 연기만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지만 관객을
집중 시킬 수는 있다”라고 말한 스타니 슬립스키, 그것이 진실
인지를 시험해 보고 있는 것 같은 나, 그 말이 거짓말이거나,
내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고운
(법학04)

시무라 역
날고 싶다, 날고 싶다, 날고 싶다!
기억해. 난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이연훈
(정통04)

쿠크 역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
그 인생 다 살아보고 싶다.



정한길
(컴공04)

이케다 역
Happy birthday to me~♪

STAFF



MAIN STAFF · 조명
김영걸 (정통98)



MAIN STAFF · 음향
김성은 (국문03)



무대감독
윤장한 (경제98)



무대장치
김태욱 (경영98)



무대미술
김종백 (경제99)



소품
이미나 (국제01)



분장
윤대현 (전기03)



의상
배상진 (행정03)



안무
박지승 (평교03)



스폰
원지은 (불문03)



진행
김승태 (정통04)



진행
도현민 (경통04)

기획의 변



기획
정한길(컴공04)

명하니 있다가
다 말아 먹겠다.
꼭 시켜야 하나?
시무라..
배고프다고 성내지마 무서워
카드로는 잔여 금액 8000원을 인출 할 수 없어
택복이는 카드가 않돼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풀" A.Ring 作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연인" 이강백 作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입" 윤대성 作	전경호	안홍순
4	1981년 3.30, 31	"벗" 이강백 作	한철	정재호
5	1982년 3.24, 25	"ARIA DA CAPO" E.St.V.Milay 作	이영환	오세화
6	1983년 4.1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학 作	최시영	이웅실
7	1984년 3.8, 9	"불색 코미디" 피터 세피 作	전희식	홍여석
8	1985년 7.20	"개인의 소금간" N.Horald 作	차세훈	김인보
9	1986년 3.17, 18, 19	"ARIA DA CAPO" E.St.V.Milay 作	이영민	허승민
10	1987년 3.12, 13, 14	"인형의 집" 헨리 입센 作	이길영	김장운 원성진
11	1987년 3.12, 13, 14	"더러운 손" J.P. 사르트르 作	백우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풀가풀기" 이현화 作	최승범	황금실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3	1989년 3.23, 24, 25	"죽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Camus 作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otoh Strau B 作	이영민 인상준 박혜숙	박경근
15	1991년 3.7, 8, 9	"노크 노크" 줄스 파이퍼 作	정현웅	이범준
16	1992년 5.28, 29, 30	"꿈 먹고 물 마시고" 이근삼 作	김상겸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에투사" George Kaiser 作	소장호	박원상
18	1994년 3.10, 11, 12	"어린 왕자" 쌩떽쥐베리 作	이영성	홍석환
19	1995년 3.9, 10, 11	"봄날" 이강백 作	양명호	정석웅
20	1996년 5.30, 31, 6.1	"울어라 베고동아" 성준기 作	정재훈	김경근
21	1997년 5.29, 30, 31	"로물루스대제" F.위렌마트 作	박정극	정석웅
22	1998년 6.5, 6, 7	"결혼/아틀로" 이강백 作	강길호 안병진	류민주
23	1999년 6.3, 4, 5	"자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홍신택	권내리
24	2000년 11.16, 17, 18	"도덕적 도둑" Dario Fo 作	김영진	강길호
25	2002년 5.30, 31, 6.1	"노부인의 방문" F.위렌마트 作	강혜정	서정우
26	2003년 5.29, 30, 31	"택시드라이벌" 장진 作	김종백	한주영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34	1986년 6.4.5.6	"EQUUS"	고민우	최승준
35	1986년 7.11.12.13	"크랩스"	한정준	송기영
36	1987년 8.3.4.5	E. 이모네스크 作 "한 아름다운 일"	by W. Shakespeare 作	윤홍준 이준석 오경호
37	1987년 9.10.11.12	"오늘"	A. 코미 作	오경호 박경근
38	1988년 6.2.3.4	"세 번은 물어 세 번은 걸어" 아이언 作		이종필 오경호
39	1988년 10.6.7.8	"안녕보니?" by Dario Fo 作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26.27	"봉나"	정승현 作	정승현 안선호
41	1989년 10/10.11.12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作		오경호 이연
42	1990년 5/24.25.26	"안티고네"	장 이수미 作	권태수 이준석
43	1990년 8/30.31.9/1	"황제연대기"	한승현 作	한승현 이영진
44	1991년 9/5.6.7	"생일파티"	H. 펜타 作	남재우 김승해
45	1991년 9/5.6.7	"날개"		양현준 권승진
46	1992년 3/19.20.21	"우린 나방을 봤었다!" 김상렬 作		임경희 정현호
47	1992년 9/17.18.19	"금관의 예술"	김자현 作	김석현 송근호
48	1993년 5/20.21.22	"세일즈맨의 유품" by A. Miller 作		황명식 박원상
49	1993년 10/21.22.23	"책시 책시"	김상수 作	소장호 이명선
50	1994년 5/26.27.28	"곳 닥터"	닐 사이먼 作	정석웅 송근호
51	1994년 9/29.30.10/1	"한티코네"		소장호 박원상
52	1995년 5/25.26.27	"성자속의 여자"	김은미 作	한승희 류성환
53	1995년 11/26.27.28	"나의 카를 오렌지 나무"	J.M. 버스콘솔로스 作	김연정 남재우
54	1996년 3/7.8.9	"자갈"		한희원 손미간
55	1996년 9/5.6.7	"죽음이라는 이름의 정체"	데네시 폴리엄TM 作	조태희 이종호
56	1996년 9/13.14.15	"우리 봄내"	손준 윤정대 作	신현경 서수경
57	1996년 10/10.11.12.13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作	엄세범 정승화
58	1996년 11/18.19.20	"살인 놀이"	by E. 이모네스크 作	조태희 이경호
59	1996년 11/26.27.28	"불고기의 축제"	윤장한 作	윤장한 조태희
60	1996년 12/1.2	"사람은 절마다 모두 죽어봅니다"	이용재 作	이용재 이경호
61	1997년 3/11.12.13	"이풀원 作"		이용재 이경호
62	1999년 9/2.3.4	"제설 낙기"	이정은 作	이정은
63	2000년 10/11.12.13	"아름다운 시인"	이정은 作	이정은 이경희
64	2000년 5/4.5.6	"장진 作"		이정은 이경희
65	2000년 6/1.2	"소나기"	김귀하 박경국	
66	2001년 3/29.30.31	"인간에 대한 예고"	서정훈 作	이목재 서정훈
67	2001년 9/6.7.8	"한간보다 달아가다"	김희진 作	서정훈 김희진
68	2002년 3/13.14.15	"붉은 브루스의 유품"	김영진 作	김영진 김희진
69	2003년 3/6.7.8	"트리비"	김태수 作	이미나 윤장한
70	2003년 9/4.5.6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김정은 作	김정은 최현경
71	2004년 6/3.4.5	"사무법 배게트 作"		이리스토 파네스 作
72	2004년 10/6.7.8	"용화체"	김정은 作	김정은 강예경
73	2005년 3/2.3.4	"아슬가게"	이상문 作	김성운 이목재
74	2005년 9/3.4	"이바우사"	정기아 作	정기아 한재진

연습일지

(시무라의 회고록)

2005.9.1 thu

위기다. 바닥을? 쳤으니 상승을 할 거라 했지만? 끝도 없이 침잠 중이다. 극회에 있어 극장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 하는 것 일까. 물론? 극장의 없음이? 지금 상태의 모든 이유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극장이라도 있었다면..? 정작 학생들은 공연할 곳이 없어 외부로 내몰리는 마당에, 외부 행사장으로 곧잘 이용되는 한경직기념관이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가!!

2005.9.5 mon

중앙도서관 앞 현혈차에서 현혈을 했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발생한 일 이었다. 영화 표, 우산과 보온 컵, 팜기구...들이 매달려 나를 유혹했다.... 기보다는 B+급구!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 여하튼, 그 원인으로 현재 어질어질하다. 수영할 때 마다 머리가 아프던 것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 저녁 6시 연습을 위하여 무려 오전 10시에 수업이 끝났으나, 학교에서 8시간을 버텨야 하는 초미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날 죽여라. 그 아혹. 동기 녀석들은 죄다 휴학이니, 어디 가서 호소할 대도 없고. 흑흑. 청춘. 이 슬픔을 녀석들은 알까..?

2005.9.6 tue

하아... 하루 종일 시원하게 부는 바람은 좋았지만, 답답한 기분. 역시 늦저녁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었는데... 흑? 그나저나, 이케다 이젠 대놓고 시비까지 거는데~? 흥! 대단한 놈일세!!

2005.9.11 sun

음.. 오늘은 어제 본 연극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나~? 솔직히, '대학연극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에도 집에 가려다 등장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건 역시나..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 때문일까? 덕분에 약속을 두개나 어겨버렸지만, 뭐 좋다고 생각해. 의외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다들 연극을 하게 된 이유는 뭐야? 난 연극을 보고 '아, 나도 하고 싶다.'라고 느낀 유형이라기 보단, "...아,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다들 즐거워 해주고 있어.'라고 느껴서 '하고 싶어'라고 생각한 유형이야. 때문에 부끄럽지만, 연극무대를 본 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지. 하하하;; 음 그래서 꼭두각시 연기를 볼 땐, 딩하고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지. 거울연기는 알고 있었지만, 꼭두각시 연기는 뭐랄까.. 굉장히 신선했다고 할까. 글쎄 모르겠어. 실제로 대학로 같은 곳에서 주로 이용하는 연기 인지도.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렇게 느꼈어. '내가 알고 있는 폭이 너무 좁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부분이었지. 물론, 그들에게도 서툰 점은 있지. 어조라던가. 자연스럽지 않은 연기라던가.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전국연극제 후보작으로 참가해서 그들과 같이 경쟁하게 된다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라고 생각하니 모르겠더라. 하하하. 우선은 연극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춘 그들의 무대와. 조잡하게 만든 우리의 무대. 그리고 영주가 여러모로 애는 쓰고 있지만, 힘든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어디든 사정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부러웠던 건 사실이야. ...에헤. 난 이번 연극에서 시무라가 되고 싶어. 후회하지 않게. 부모님에게 꼭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

뒤를려버린 한 인생을 꼭 피워 내보고 싶어. 여기 있다고 난 여기 존재하고 있었노라고 시무라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투 오늘로 끝이야! 캬캬캬!!!?